1999年度
行政監査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施設管理公團

日 時 1999年12月4日(土) 13時18分
場 所 施設管理公團 會議室

(13時18分 監査開始)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9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오늘 시설관리공단을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대변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짧은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집행부가 잘못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과 대안을 제시 또는 개선을 촉구하는 등 그야말로 의회의 고유권한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종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해주시는 趙學來 理事長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경영에 있어서 불법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은 없었는지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낭비요인 등은 없었는지를 확인하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시정하고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여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려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규정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진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趙學來 施設管理公團 理事長이 대표로 선서하겠습니다. 참석하신 委員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理事長 趙學來 "宣誓.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年 12月 4日

施設管理公團
理 事 長 趙學來
理 事 尹熒老

○委員長 李憲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一同着席)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에 대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간수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趙學來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理事長 趙學來 李憲九 委員長님! 安載弘 幹事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아녕하십니까?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학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특별히 공사다망하신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우리 공단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저희 공단 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尹熒老 常任理事를 소개 올립니다.

다음은 李重燮 管理課長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李木熙 運營課長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全鎣集 管理主任입니다.

다음은 尹先光 運營主任입니다.

다음은 林在成 主任입니다.

다음은 우리 공단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1999年度 主要業務推進現況

(施設管理公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공단의 '9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사장 이하 전 임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굳게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憲九 趙學來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施設管理公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安載弘委員께서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安載弘委員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安載弘委員 安載弘委員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언제나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를 다녀보니까 자료나 통계가 부실한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명료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없어서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부들의 전직이 기록된 인적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두번째로 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을 맺고 있는 팔각정이라든가 휴게소라든가 또는 관리공단 내에 있는 부대시설에 대한 계약서하고 계약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외 수당 지급내역은 '99년 3월, 6월, 8월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단에 파견나와 있는 파견근무 인원에 관한 자료를 직급과 구청의 소속과와 현재 담당 업무와 파견일자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을 '98년도와 '99년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하나를 택해서 스포츠 수강인원과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인 토탈자료만 있는데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는데 탁구와 배드민턴, 검도에 대한 강좌별 강사료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 모니터요원 구성내용을 요원의 인명부를 첨부해서 구성내용하고 접수된 건의사항 여기 2개소에 71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놓은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洪起瑞委員! 말씀하십시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그 동안의 이

사회 회의록하고 자체감사한 감사보고서 혹시 외부감사가 있었다면 외부감사보고서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李東奎委員! 말씀하십시오.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현재 유도, 축구, 그 다음에 헬스 그 부분에서 강사료하고 수입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전문직 강사료는 제외라고 했는데 뭡니까? 시간강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문직 강사라고 한 것은 뭐죠?

○理事長 趙學來 정규직원입니다.

○李東奎委員 정규직원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한테는 별도로 수강료가 안 나간다 이겁니까?

○理事長 趙學來 예, 그렇습니다.

○李東奎委員 파견직원이 7명이라고 했죠? 기능직 3명, 방범원 4명, 그 현황을 갖다 주십시오.

(○洪起瑞委員 議席에서 - 자료요청한 것은 각 위원들한테 한 부씩 갖다주십시오.)

○委員長 李憲九 세 분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는 한 위원이 요청했지만 전 위원에게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鄭泰淳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泰淳委員 鄭泰淳委員입니다. 우리 趙學來 理事長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趙學來 理事長님께서는 여기 공단 理事長님으로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98년 1월 3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鄭泰淳委員 지금 우리 趙學來 理事長님께서는 그 동안에 우리 都市整備局長님으로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시게 되었죠? 우리 趙學來 理事長님께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직에 계시면서 청렴하시다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셨고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는 공무원이라고 공무원들한테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공단을 발족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수익을 위해서 우려 반 기대 반 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저희 의원들도 이것을 위탁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하다가 그래도 한번 직영을 해서 수익사업을 해 보자고 해서 구민생활관을 만드는데 어려운 시점에 오셔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직영을 해서 수익사업을 운영함으로 해서 주민의 복리증진도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세우는 이정표를 세우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지역적으로 종로구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인접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성북구 주민들도 많이 오지만 먼 지역에서 동서지역에서 이곳을 활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직접 여기 와서 운동할 기회는 없지만 이곳을 활용하는 주민들이 극찬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볼 때마다 우리 趙學來 理事長님과 더불어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자긍심이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기법에 있어서도 일반 회사에서 수익을 추구하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은 가장 어려운 때에 전반적으로 일선에서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도 이런 실적 상황을 보면 손익실적을 보면 작년에도 우리가 수익이 7억이라는 금액이 실적을 올렸다고 해서 금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역시 금년에 기대치에 충족된 그 이상으로 실적 도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여기에서 계시는, 앞으로 정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규정상에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鄭泰淳委員 그러면 지금 2년이 좀 넘었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예.

○鄭泰淳委員 규정상에는 그러면 3년으로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시작하시고 언제 끝이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종일관 공직에서 해오셨던 그대로 여기에서 하셨듯이 마무리할 수 있는 그때까지 최선을 경주해 주시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분이 여기에 와서 공단을 관리하게 되실지는 몰라도 이렇게 운영하신 그 실적 자체가 타인의 귀감이 되고 또 우리 구민에게 공단이 꼭 필요한 앞으로의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경치가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삼청동이나 평창동 같은 경우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공익을 도모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지혜를 모아서 우리 위원이나 구민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러한 것을 연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理事長 趙學來 고맙습니다.

○鄭泰淳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鄭泰淳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입니다. 우선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신 趙學來 理事長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공직에서 물러나셔서 시설관리공단에 오신 지 벌써 2년이 넘어서 3년 임기를 다 채우실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감사의 말씀은 보다 더 획기적이고 보다 더 효율적인 그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이만큼 확장 또는 증대시켜 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설립 배경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복리 증진, 그 다음에 전문적인 관리능력, 양질의 서비스, 그 다음에 수익성과 공공성의 확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理事長 趙學來 예, 그렇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7쪽에 보면 '98 사업년도 경영평가 실시 거기에서 평가결과 100점 중 94.10점을 득점했다고 해서 평가등급이 '다'급을 받았다고 했는데 '다' 등급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저희들이 평가등급이 '가'급에서 '마'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더 받지 못하고 '다'급밖에 못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이 첫째가 경영평가를 받은 것이 첫 해였습니다. '98년 실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어떤 테크닉이랄지 준비하는 요령도 처음이고 해서 경험도 부족하고 이런 점에 있어서 우선 좀 덜 받은 것이고, 두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은 체육시설관리공단이라는 스포츠센터 부분이라는 단일종목입니다. 이것 때문에 평점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데에는 예컨대 저희들하고 공단이 광역 단위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시하고 대구시를 우리하고 같이 범주에 범위에 넣어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 단위에서는 경영평가를 받는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 기관하고 우리하고 같이 대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년도에는 비록 94점으로 '다' 급밖에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러한 경험을 살린다면 차기에는 '99년도 경영평가를 하는 내년도에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李東奎委員 얼마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다'급 이상은 받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李東奎委員 '다'급이면 한 등급 정도 올라가는

○理事長 趙學來 '다'급 이상이니까 '나'급 정도 되겠죠.

○李東奎委員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理事長 趙學來 예.

○李東奎委員 그렇다면 최초에 '98년도 평가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평가등급을 받을 때 시설관리 부분이라든지 각 관계되는 관리공단들이 상당히 공사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을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최초에 시작하고 많은 것을 보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같이 견학도 가시고 했어도 상당히 힘들었다 최초에 설립되고 나서 모든 부분이 정착이 안되어 있는 과정이 힘들었다는 얘기죠?

○理事長 趙學來 예.

○李東奎委員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이따가 별개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생활취미 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느 쪽입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꼽는다면, 趙 理事長님께서 스포츠 분야가 가장 어렵다 아니면 취미교실 쪽이 어렵다 어느 부분이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理事長 趙學來 그게 우리가 사업을 현재는 팔각정 운영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운영하고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저희들이 팔각정을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李東奎委員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어렵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팔각정은 우선 저희들이 공공시설입니다. 공원부지 내에 주차장시설 또는 음식점, 휴게소 이런 등등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주차장요금을 30분에 1,000원 또 10분 초과시 500원씩 그래서 60분을 주차할 경우에는 2,500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임에도 공원 안에 있는 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걸 왜 그렇게 주차요금 때문에 압박을 받는 이런 불편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무료로 해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런 부분 때문에 제일 어렵다는 거죠?

○理事長 趙學來 그런 것이 있고, 또 업소에서도 사실 지금 영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품목제한을 당초에 계약할 때 품목제한을 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품목제한을 해 가지고 그 업소에서 영업이 안되는데도 굳이 품목을 고수하도록 하다보니까 업소에서 항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아무리,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상인이라는 사람들은 남아도 남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은 영업이 객관적으로 볼 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공단 책임자로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스포츠센터는 조금 그래도 쉬운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개인 사설단체에서는 시설을 가장 최신시설로 쾌적한 그런 시설로 장비들도 아주 최신장비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양적으로는 여기가 우수합니다마는 질적으로 있어서는 결코 우수하지 못합니다. 시설도 노후되었고 여기 장비 면에 있어서도 노후되었고 그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가 결코 경쟁우위에 항상 있을 수만은 없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 때문에 물었는데 미리 역시 우리 유능하신 이사장님께서 역시 본 위원이 읽는 걸 미리 앞질러 가신 것 같은 느낌에 대단히 우선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말씀 드리자고 하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팔각정을 오픈한 뒤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그 시설물을 가끔 들어가보고 하면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점과 애로점이 있느냐 하고 주민들에게 물으면 역시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불편사항 문제를 어떤 거기에서 주차요금을 받다보니까 이중적인 과세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돈을 너무 많이 내다보니까 과거에 팔각정이 있을 때는 주차장을 마음대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있다가 주차요금 안 내고도 나갔었는데 말하자면 편리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두번째로는 주차장 문제 말고 지금 음식값이 대단히 비쌉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理事長 趙學來 예, 알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음식값이 턱없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무슨 결혼식이 끝나고 요새 젊은이들이 피로

연을 과거에는 그런 곳에 가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갔다온 사람들이 젊은이들 입과 입을 통해 가지고 벌써 소문이 쫙 났습니다. 뭐라고 소문이 났느냐면 팔각정에 올라가니까 바가지더라, 그렇게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 하는 젊은이들이 그런 곳에 가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종로구 수익이 줄어드는 결과가 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비춰질 때 우리 종로구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최초에 우리가 경쟁을 시켜서 입찰을 해서 그 입찰에 의해서 8억 9,000만원에 최초에 입찰했던 것을 우리 의회에서 재입찰해라 해 가지고 13억 1,100만원에 아마 재낙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가지고 접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경영수법을 보면 소수의 품목을 가지고 그저 서비스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오면 의례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내왔던 그런 부분으로 그저 오면 착취하려고 하고 바가지 씌우려고 하는 그런 인상이 많다 그런 부분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지 우리가 팔각정을 살려내고 우리 종로구의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개념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똑같이 느끼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돌아서 보니까 화장실 옆에 한옥맨션인가 다 완공해서 되어 있습니까? 임대를 줬습니까?

○理事長 趙擧來 예, 그렇습니다.

○李東奎委員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理事長 趙擧來 년 460만원입니다.

○李東奎委員 년 460만원이면 굉장히 싸네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비춰지는 게 최소한도 그런 것을 지어서 종로구 살림살이를 이끌어가는 구의회에서도 몰라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최소한도 그런 정도 지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 가지고 경쟁입찰을 시켜서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얘기도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만 하더라 이런 식의 얘기지 지금 다 되어 가지고 오픈했는지 뭘 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투명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理事長 趙擧來 그것은 공사는 구청에서 발주해 가지고 다 마친 다음에 공사를 완공시켜 가지고 저희들에게는 그것을

○李東奎委員 그것은 압니다. 알기 때문에 묻는 거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理事長 趙擧來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이

○李東奎委員 곤란하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뒤에 가면 제1휴게실과 제2휴게실이 있죠? 그러면 커피숍 일명 '숲속의 커피숍'인가 뭔가 있죠? 그 커피숍 밑에 가스통 그런 게 전에는 안되어 있고 위험하게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시설을 제대로 다 해놨습니까?

○理事長 趙擧來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호 휴게소에서는 가스통을 LPG통을 밑으로 언덕으로 내려가 가지고 지하에다가 그것을

○李東奎委員 그러면 계단이나 다 만들어줬습니까?

○理事長 趙擧來 예.

○李東奎委員 그러면 2휴게실은요?

○理事長 趙擧來 2휴게실은 박스에 LPG통을 넣도록 불안감을 우리 행인들이나 관광객들이 다니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게 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봐서는 LPG통이 있다는 것을 못 느끼실 겁니다.

○李東奎委員 그렇게 했습니까?

○理事長 趙擧來 예.

○李東奎委員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이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화장실 유도표시가 잘 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理事長 趙擧來 저희들이 화장실 유도표시를 벽에다 표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종합안내판에다가도 큼직하게 해 가지고 유도표시를 했습니다. 지

금 현재는 화장실을 못 찾아서 헤매는 이런 불편을 저희들이 해결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했던 것보다는 충분하게 보완을 했습니다.

○李東奎委員 본 위원이 보고 듣고 느낄 때는 화장실을 지상으로 올라가서, 지하에 차고로 가서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상으로 올라가서 팔각정 위에 부분에다 차를 대놓고 화장실을 찾으려고 하면 거기에 유도표시가 없더라고요. 전에는 화장실 표시를 과거에는 내려가서는 있었던 화장실 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가 봐서는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최소한도 그때 당시 화장실 유도표시가 없다 보니까 급한 사람들이 '화장실이 어딥니까?'라고 꼭 물어야만 하는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인 것을 가져오려고 하면 지상에 유도표시를 크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 화장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빨리 유도할 수 있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되면 그 밑에 내려가면 제1휴게소와 제2휴게소도 있다는 것이 PR도 됩니다. 더불어서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몇 가지 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차후에 묻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니까요.

○委員長 李憲九 예, 李東奎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 질의하십시오.

○洪起瑞委員 우리 李東奎委員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공공시설 같은 데에 입찰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 팔각정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공고를 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합니까?

○理事長 趙學來 우리가 입찰공고를 합니다.

○洪起瑞委員 여기에서 입찰공고를 냈습니까? 몇 명이나 입찰공고에 응했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입찰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응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게시공고를 하고 동관계는 동사무소에다 그런 것을 알려가지고 우리 관내 주민들이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응찰하게끔 그러한 안내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세 분밖에 응찰을 안 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그것은 장애자에 한해서가 아니고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理事長 趙學來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3명 정도밖에 응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면 홍보 부족인 것 같습니다. 홍보 부족인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입찰이 있게 되면 좀더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종로 관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인력 현황을 보면 현원이 32명이네요?

○理事長 趙學來 예.

○洪起瑞委員 그렇죠? 그러면 '99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98년도 역시 출범을 할 때 저희들이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정원은 38명이었습니다. 38명이었는데 저희들이 육칠명을 결원을 유지했습니다. 그 대신에 정규직원을 결원을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시간강사, 전문직으로 하는 계약직을 채용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인력 운영 면에 있어서 좀더 융통성있게 저희들이 하느라고 현원은 32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작년이나 금년이나 인원이 늘어난 것은 없죠?

○理事長 趙學來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계약직은 늘어났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지금 현재 계약직은 4명입니다.

○洪起瑞委員 4명으로 늘어났습니까? 작년 대비 금년에

○理事長 趙學來 작년에는 4명인데 금년에는 6명으로 2명이 늘어났습니다.

○洪起瑞委員 두 사람이 늘어났어요?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면 이 비용 면을 보면 '98년도에는 13억 2,597만 4,000원인데 금년도에는 아직도

연말정산을 안 했는데 16억 4,818만 3,000원입니다. 이 늘어난 부분이 약 3억 정도가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理事長 趙學來 지금 현재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洪起瑞委員 인건비만 하더라도 8천 정도 늘어났네요. 그렇죠?

○理事長 趙學來 그러니까 '97년도에 7억 7,100만원이 8억 5,300으로

○洪起瑞委員 '98년도에는 7억 1,004만 1,000원이 나갔는데 지금 현재 '99년도에는 8억 5,307만 1,000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달수는 두 달이 더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늘어나지도 않고 했는데 인건비를 그만큼 상향조정을 했냐고요. 직원들 인건비를.

○理事長 趙學來 저희들이 강좌수나 회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인건비 안에는 전문직에게만 지급되는 인건비가 아니고 모든 인건비 정규직원이라든지 또는 기타 강사까지 다 포함된 인건비입니다.

○洪起瑞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묻기를 그렇게 계약직이나 이런 것이 더 늘어났느냐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작년 대비 금년에. 인원이 그대로라는 말씀을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인원은 그대로인데도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더 확장이 되어서 이런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보충이 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먼저 제가 작년 대비 금년 인원 현황을 물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깁니다.

○理事長 趙學來 洪委員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당초 발족할 때 인원이 얼마였느냐는 그것을 저는 정규직원으로만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洪起瑞委員 그래서 계약직도 늘어났고 하니까 4명에서 6명으로 2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인건비를 보니까 1억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프로그램이 늘어나서 거기에 쓰는 강사료까지 해서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理事長 趙學來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와 가지고 한번 지적을 했는데 경리장부를 복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단식부기를 쓰는 것 같습니다.

○理事長 趙學來 아닙니다. 저희들은 기업회계 방식으로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런데 대차대조표 같은 것을 보니까 복식부기를 안 했는데

○理事長 趙學來 아닙니다. 결산보고서 작성은 회계법인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작성한 겁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교양강좌 프로그램이 체육스포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인기종목이 있고 비인기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인기종목은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기종목 같은 것을 옛날보다 종로를 많이 주고 타구에 대비해서 줄이겠다고 말씀했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그 편차가

○理事長 趙學來 저희들이 이용 회원수에 있어서 저희들이 10월말 현재로 우리 종로구민이 '98년도에는 35.7%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99년 10월말 현재로는 39.6%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50%를 달성하려고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동사무소 또 심지어는 셔틀버스를 증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차한 것을 우리 관내에다 중점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체육도 좋고 문화프로그램도 좋고 이런 각종 어떤 우리 구민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39.6%밖에는 아직 달성을 못했습니다. 아직도 안 11% 정도 달성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50% 정도는 상회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洪起瑞委員 비인기종목은 모르지만 인기종목은 여기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잖아요?

○理事長 趙學來 지금 현재 수영의 경우에는 부

득이 수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되지만 그 외에는 저희들이 100% 다 받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런데 주부들이 제일로 갈망하는 게 수영이라는 얘기예요.

○理事長 趙學來 수영이 사실은 말이죠 우리 종로구민들에게는 비공식적으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수영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이게 뭐 이런 시설이 있어봐야 뭐하느냐 우리는 가보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항변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수영 말만 하면 곤혹스럽고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이 동대문 쪽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곤혹스러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내 동네에 있으면서도 해결을 못해서 현대건설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구민회관이 들어서게 되면 동부지역도 이렇게 있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자기 지역에 있는 시설물에 자기 지역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그래도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해줘야 되거든요.

○理事長 趙學來 앞으로 창신동과 숭인지역에서 오시는 우리 회원들께서는 그쪽을 이용하시게 되면 그만큼 줄어드는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종로 관내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지금 현재 우리 자산을 가지고 예치는 어느 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저희들이 자본금 5억원은 외환은행에다 하고 있고

○洪起瑞委員 몇 %로 하고 있습니까? 이자가

○理事長 趙學來 작년에는 저희들이 13%로 했던 것을 금년에는 7.8%인가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빛은행에다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거기는 어떤 종목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저희들이 대기성자금은 이율이 가장 높은 것 그런 것을 택해서 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제일은행 출신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항상 좀 대기기간이 여유자금이 있는 것은 그런 인식이 가장 높은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이게 사실 금리가 무시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일로 안전성이 있고 금리가 고금리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산을 가지고 운용을 혹시 투자신탁이나 이런 데에는 예치한 게 없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없습니다.

○洪起瑞委員 왜 그러냐면 금리 쪽으로 신경을 쓰라고 하니까 투자신탁 쪽에 해가지고 주식펀드 편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원금도 못 찾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성도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이율이 우리가 좀 다른 것보다는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금리 쪽으로 선택을 해서 운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하나의 우리 종로구청의 유일한 사업의 주체거든요. 그런 사업의 주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우리가 경영진단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理事長 趙學來 여기에 수익성이 제일이 아니고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편의성, 부담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수익이나 영리에 급급한 그러한 기관이 아니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 가지고 손실이 없는 그런 운영방법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하나의 이념입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금년 '99년도에 안전사고 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洪起瑞委員 수영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일이 있지 않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그것은 본인의 과실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다니다가 찰과상이 생기거나 이런 것은 시설의 불비로 인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지도사를 배치해 가지고 그러한

점에 유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이용하는 회원이 전체 수영 외에 하루 평균 2,500명 정도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요인으로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만의 하나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회원을 모아놓고 안전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저희들이 회원을 한꺼번에 모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담당지도선생이 시작하기 전에 또는 종료 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회원들이 나이 많은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들이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평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병이기는 하지만 일단 여기 들어와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염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세심하게 주의를 하고 있는 것을 洪委員님께서 믿어주신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겁니다.

○洪起瑞委員 수영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한시간 있다가 깨어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理事長 趙學來 그런 것은 본인이 지병을 가지고 있는

○洪起瑞委員 지병이 아니에요.

○理事長 趙學來 지난번에 한번 내려가다가 헛디뎌 가지고 발을 실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이 많은 여성분이 불상사가 일어난 일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시설 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가족들이 우리를 굉장히 고마워했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어느 곳이나 이용하는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을 위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 안전성 위주로 할 수 있는 가끔 안전교육도 실시해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직 강사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理事長 趙學來 전문직 강사는 12명입니다. 그 외에 문화프로그램 강사는 12명 외에 40명입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40명 인건비는 어떻게 줍니까?

○理事長 趙學來 그것은 실적배당으로 5대 5 소위 배분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현재 여기 인건비에 40명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理事長 趙學來 예.

○洪起瑞委員 그리고 여기 보면 과부족으로 해가지고 충원대상 5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54명은 언제까지 충원하실 겁니까?

○理事長 趙學來 저희들이 아직까지 충원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12월 중에 바로 충원계획을 세워서 내년 2월초 구민회관 발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저희가 이번에 운영기획팀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 소요인원을 같이 보충해 가지고 발족을 시킬 계획입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54명의 인원을 충원할 때 이것은 여기 있는 이사장님이 바로 충원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지원을 받을 겁니까?

○理事長 趙學來 지금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 전문직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고용직, 일반직 이런 직종을 가능하면 널리 기회를 줘서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이 54명 선발할 때도 이사장님 외 임원들이 선정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理事長 趙學來 구청에서 일부 추천을 해주면 그 인원도 포함해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洪起瑞委員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이 공단이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인원 하나 보충하는 것도 지금까지도 구청에서 배려를 하고 구청의 입김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지식 요원을 뽑기 위해서 구청에다가 몇 사람을 추천해 달라면 모르지만 구청에서 인사권

까지 관여해 가지고 이사장은 가만히 앉아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이사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조직관리나 이런 것은 조직의 장이 해야지 사람 하나 채용하는 것을 지금까지도 구청에 밀려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안된다 그것입니다.

○理事長 趙學來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구청에서 저희들에게 추천해주는 의미이지 구청에서 결정해 가지고 이 사람을 임명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洪起瑞委員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원 하나 채용하고 하는 것을 이 관리공단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위를 보면 시민단체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감시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종로에서 잘못 비쳐 가지고 하물며 시설관리공단 인원 채용까지 구청에서 관여하는 이런 인상을 풍겨 가지고 매스컴에라도 나오게 되면 우리 20만 구민의 수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 하나하나를 이사장님께서 잘 챙겨 가지고 그런 물의가 안 일어나고 또 우리가 질적으로 좋은 인재를 채용해서 기왕이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들어와야지 그저 외압이나 압력에 의해서 그런 인력을 써 가지고 물의가 난다든지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理事長 趙學來 고맙습니다.

○洪起瑞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朴鍾植委員! 질의하십시오.

○朴鍾植委員 朴鍾植委員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洪委員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관리공단 임용권은 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있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사장님을 구청장이 임명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사장을 구청장이 임명하는데 구청장님이 내려보낸 직원을 안 쓴다면 어려운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사장의 선임 문제도 조만간 거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근본해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洪委員님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지금 소극장은 대개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저희들이 일부 소극장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는 대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朴鍾植委員 대관이 많이 됩니까?

○理事長 趙學來 그렇습니다.

○朴鍾植委員 맨날 놀고 있는 것 아니에요?

○理事長 趙學來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주부가요를 1주일에 두 번을 거기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연극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저희들이 사실 대관을 하기 위해서 좌석수를 정비하고 해가지고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설 유아어린이집에서 대관을 해달라는 주문도 들어오는 등 대관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朴鍾植委員 그리고 체조교실이 있고 에어로빅교실이 있는데 이것이 따로 있어야 되나요? 체조교실은 아침에 하는 것 아닙니까?

○理事長 趙學來 아닙니다. 체조교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朴鍾植委員 몇 평이나 됩니까?

○理事長 趙學來 27평입니다. 이것이 넓지 않아서 체육관에 에어로빅이라든지 체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체조교실로 활용하고 유도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朴鍾植委員 체조교실 이용하는 회원이 상당히 있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체조교실에는 단학회원들이 그 장소를 이용하고 있고 유도회원이 그 장소를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택견이 그 장소를 이용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관에 일부 체조종목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이쪽을 체조교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어로빅장은 3층에 있습니다. 거기는 80여 평 되는데 거기는 주로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회원들이 사오십명 되기 때문에 그 장소 외에는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마루바닥을 깔아 가지고 정비를 잘해놨습니다. 그곳을 에어로빅 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朴鍾植委員 에어로빅 회원이 사오십명 된다는 말씀이죠?

○理事長 趙學來 아니죠. 한 타임에 그렇고 전체는 250명 정도

○朴鍾植委員 하루종일 하는 회원이 그렇게 많다 그거죠?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네요. 아까 洪委員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회원이 과다상태이고 부족난을 겪고 있는 것은 수영장이라는 거죠? 수영장을 증설할 만한 곳은 없어요?

○理事長 趙學來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영장 전체 규모가 42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6레인을 해가지고 한 레인에 보통 20명 그러면 6레인이니까 120명 정도입니다. 풀로 다 차게 되면 그런데 저희들이 회원을 항상 120명 내지 130명 정도해서 더 뽑습니다. 다 안 나오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레인을 넓힐 만한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창신동에 25m 5레인을 만들어서 여기 이용을 못하는 회원들을 그쪽으로 모시면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우선 저희들이 샤워장이라든지 탈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 수반되어야 되고 기존의 배관 자체를 전부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朴鍾植委員 지금 요금이 싼 까닭도 있지만 모두가 에어로빅이 하루에 250명 정도 된다면 회원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理事長 趙學來 그렇습니다.

○朴鍾植委員 그리고 수영도 포화상태이고 보니까 체육실도 인원이 많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활발하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편인데 한 달에 3만 5,000원 정도 되죠?

○理事長 趙學來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朴鍾植委員 수영도 그렇고 헬스도 그렇고

○理事長 趙學來 수영은 종목이 수영 3일 체조 3일 이렇게 하면 3만 7,000원인데 다른 데에 비하면 저렴하죠.

○朴鍾植委員 지금 그렇게 받아도 적자는 안 난다 그거죠? 흑자죠?

○理事長 趙學來 예.

○朴鍾植委員 그리고 문제가 팔각정이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녹지과에서 입찰을 받아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녹지과에서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각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理事長 趙學來 팔각정은 거기에서 하다가 종결짓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朴鍾植委員 유찰되어 가지고 재입찰 해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억 1,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5년을 계약으로 했잖아요?

○理事長 趙學來 예, 그렇습니다.

○朴鍾植委員 5년을 계약한 것을 1년씩

○理事長 趙學來 5등분 한 것입니다.

○朴鍾植委員 5분의 1이죠? 그것이 그리고 한옥전통 매점에서 467만원 수입을 보고 임대관리비가 있고 주차장에서 1억 7,000만원, 이렇게 많은 수입이 있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그렇습니다.

○朴鍾植委員 주차장에서 1억 7천이라는 수입이 있으면 팔각정은 43억원이라는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1년에 2억 정도 번다는 것은 정말 아까운 투자네요. 팔각정에서 지금 종사하는 종업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理事長 趙學來 9명입니다.

○朴鍾植委員 이것은 어차피 시비를 많이 들여서 서울시민들한테 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한 것으로 봅니다마는 팔각정의 운영이 흑자운영이 되도록 이사장께서 적극 노력을 해주셔야 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安載弘委員! 질의하십시오.

○安載弘委員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98년도의 예산서 '98년도 결산서를 공단 재무회계규정 제156조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한 내용을 제

출해 주시고 동료위원이신 洪起瑞委員께서도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예산서에 첨부된 자본운영계획서 '98년도, '99년도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구입한 물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결제사항과 구매계획서, 물품관리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를 1건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것으로 자료요청을 마치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팔각정을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바도 있지만 사실은 휴게소 1, 2는 그런 대로 잘 마무리가 되어서 임대료가 구청으로 납입되었고, 팔각정 음식점 본체에 대한 입찰과정에서 소위 글씨를 잘못 쓰는 오류를 범하는 바람에 결국 유찰되었고 다시 공단으로 관리권이 이양되면서 다시 입찰을 봐 가지고 결국은 낙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관리공단에서 입찰을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찰서류에 글씨를 잘못 쓴 오류가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理事長 趙學來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安載弘委員 아까 자료요청한 내용 중에 입찰시 가격을 써낸 기록이 있다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팔각정 본체 계약은 어차피 다 입찰을 공단으로 하여금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 안에 매점을 둘 수 있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팔각정 안에다가 매점을 말이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安載弘委員 아니, 그러니까 계약체결을 할 때 매점을 둘 수 있게끔 계약내용에 있었느냐는 질문입니다.

○理事長 趙學來 예, 매점에서 빵, 과자류를 팔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약조건에다가 넣었습니다.

○安載弘委員 계약서를 보자고 한 이유가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류 전체를 한꺼번에 마련해서 가져오려고 하지 마시고 서류가 되는 대로 갖다주시고 그것을 보고 질문을 드릴테니까 위원들이 요구한 서류를 한꺼번에 다 가져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류가 먼저 된 것은 먼저 가져오고 나중에 된 것은 나중에 가져오셔야 위원들이 질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사장님께서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팔각정 계약을 5년간 하셨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예,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연 467만원 아닙니까?

○理事長 趙學來 예.

○安載弘委員 여기가 몇 평입니까?

○理事長 趙學來 7평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安載弘委員 공개경쟁 입찰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安載弘委員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옥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제한은 무엇이었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지금 거기는 토산품, 민속공예품 그러니까 기존에 판매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는 것을 주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어차피 휴게소 일이나 팔각정의 모든 업소들이 적어도 품목의 중복이 있다면 치열한 소위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이신 李東奎委員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대료가 비싸서 그런지 대체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영업하는 사람들의 재량이겠지만 많은 시민들은 종로구에서 운영하지는 않지만 실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업지도에 관한 관리지도가 관리공단에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지도나 관리지도를 통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이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박리다매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수지도 맞춰가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가 와야 되겠지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공단에서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제 생각에 하나는 종로구민의 복지증진이고 하나는 수익성의 제고일 것입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보고하신 이 현황자료에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없고 새로운 2000년에도 중요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즉 말하자면 주민의 복리증진과 아울러 수익성 제고 사업을 어떻게 맞춰나갈 것이냐, 즉 복리를 증진시키면서 또한 공단의 사업수익을 고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 200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운영관리라든가 또는 시설물 등 또는 구민회관 또는 체능사업단의 경영합리화 방안이 나와 있는데 포괄적으로 사업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서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을 독립된 회계법인으로 본다면 종로주식회사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두 가지 측면을 증진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사업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사장님과 이사님 직원들은 어떤 사업목표를 뚜렷이 세워서 그것을 매월별로 테마를 정한 다음에 그것을 케치프레이즈(catch phrase)라고 해도 좋고 친절을 상향시킨다든지 또는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찾는다든지 이러한 목표를 아울러 2000년 이후에는 세워서 추진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理事長 趙學來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지금 자료요청한 것이 한 건도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李東奎委員 議席에서 - 좋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늦게 갖다주면 밤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자료를 가급적 빨리 갖다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42分 會議中止)

(15時10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 질의하십시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지금 현재 서틀버스를 4대 운영하고 계시죠? 그런데 1대는 시설관리공단 차량이고 3대는 임대를 하는 겁니까?

○理事長 趙學來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주는 겁니까?

○理事長 趙學來 용역비는 계약을 해 가지고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입찰가격을 정해 가지고 거기서 적정 낙찰가격을 써낸 사람을 낙찰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우리는 얼마에 흥정을 했습니까? 찾는 동안에 물을게요. 이것이 자가용입니까? 영업용입니까?

○理事長 趙學來 그것은 영업용입니다.

○洪起瑞委員 영업용이면 보험은 다 들었겠네요. 자손, 자차 다해 가지고

○理事長 趙學來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속해 있는 차량은 보험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종합차량보험으로

○洪起瑞委員 다 들었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예,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 종로구청 관용차량을 보니까 보험료를 일부분만 들었더라고요. 자손, 자차 이런 것은 안 들어 가지고 만약에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는 아무런 보상을 못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안전을 위해서 제가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운영하는 4대는 전부 종합보험을 들었다 이거죠?

○理事長 趙學來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또 우리가 계약을 맺은 차량은 영업용이라는 얘기죠?

○理事長 趙學來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사람이란 모르는 일이거든요. 시내만 돌아다닌다고 해가지고 안전한 것은 아니거

든요. 사고는 항상 따라다니는 거니까 우리가 회원들의 안전에 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理事長 趙學來 제가 염려하는 것이 겨울철이 되면 저희들 차가 동숭동 고지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차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보험은 완벽하게 가입해 가지고 유사시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유수영은 매주 있죠?

○理事長 趙學來 예,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그것은 인기가 괜찮죠?

○理事長 趙學來 여름에는 하루에 3타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도 저희들이 네번째 일요일만 쉬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일요일은 세번 하고 동절기는 두번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절기에는 오는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돌려보내는 때도 있습니다마는 겨울철에는 오는 회원들을 저희들이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수영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洪起瑞委員 연간 따져보면 2억 가까운 수익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까? 1억 8,500만원 정도 2000년도에는 수익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자유수영에서

○理事長 趙學來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자유수영에서 그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겨울철에는 인원이 없어서 그것을 못 저기하고 여름에는 너무 과다하게 넘치고 그러네요.

○理事長 趙學來 겨울에는 저희들이 운영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두 타임만 하게 했는데 그것은 일요일에 한해서만 그렇고 아침에 6시부터 수영장 문을 열면 7시에 자유수영입니다. 12시 15분에도 자유수영이고 하루에 두번씩 평일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7시하고 12시 15분이 시간상으로 적기타임으로 봅니까? 아니면 비적기타임으로 봅니까?

○理事長 趙學來 아침에는 직장에 나가기 전에 여기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장인을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유수영을 할 수 있는 매일 나올 수 없는 직장인을 위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루에 두번씩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불편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洪起瑞委員 자유수영 시간에는 회원은 입장이 안되죠?

○理事長 趙學來 회원도 됩니다.

○洪起瑞委員 회원도 되면서 자유입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내에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얼마나 됩니까?

○理事長 趙學來 지금 면적은 600여 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주차가용면적은 200평 가량 되는데 대수로는 58대 약 60대입니다마는 실제 주차하는 것을 봐서는 거의 100대 가까운 80대에서 10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래서 왜 제가 이걸 묻느냐면 야간에는 우리 회원들이 이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간주차를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개방을 하게 되면 이 인접해 있는 주민들도 편리를 도모하고 또 수익도 올리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야간만 개방을 해 가지고

○理事長 趙學來 작년에도 洪委員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6시부터 개관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차시간을 5시 이전에 차를 뽑아가면 오는 회원들을 맞이하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이 유료화 했을 때 그 분들이 차를 뽑아나가지 않으면 차로 맞이하는 회원들의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불가능하겠다 해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6시대에도 차량이 많이 들어옵니까?

○理事長 趙學來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용하는

회원들이 우리가 6시부터 수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준비하고 이러려면 우리 요원들은 5시, 늦어도 40분까지는 와서 대기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원들은 10분 전에 준비를 들어가기 위해서 6시부터면 5시 50분까지는 회원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이용하는 회원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대부분이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침 6시부터 수영장이 문을 열죠? 그러면 다른 강좌도 6시부터 하는 강좌가 있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우리가 검도하고, 단학은 7시부터 지금은 주로 제일 많은 것이 수영입니다. 수영, 검도.

○洪起瑞委員 그러면 수영을 하는 강사들은 우리 직영강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2부제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理事長 趙學來 지금 현재 시간을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교대근무를 합니다.

○洪起瑞委員 글쎄 그래야지. 왜 그러냐면 아침 5시 30분부터 와가지고 밤까지 이러는 것은 안되니까 2부제나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검도 같은 것은 똑같은 것이 되겠죠?

○理事長 趙學來 검도는 아침 6시부터 한 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6시부터 8시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洪起瑞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존경하는 洪起瑞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趙學來 理事長님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규모가 대지면적이 1,921평이고 연건평 2,043.8평 맞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예.

○李東奎委員 그러면 이 면적 위에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고 뽑아보니까 그 평수 위에 그 면적의 손익계산을 한번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한 손익이 나고 있는데 약 300만원씩 분양대를 잡아도 최소한 잡아도 12억인데 12억을 나누기를 해서 저희들이 은행금리로 따져도 상당한 수익사업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걸 비교한 것을 보고 본 위원이 두들겨보니까 지금 너무 손익이 나지 못하고 실익이 생기는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 5쪽에 보시면 '9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손익 실적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손익 실적입니까?

○理事長 趙學來 이것은 영업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체육시설이라든지 부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들어온 수익금과 그 다음에 팔각정 시설을 해가지고 들어온 수익, 그 외의 영업으로 들어온 수익을 이런 것을 통틀어서 저희들이 전체 금년도의 목표가 32억입니다. 이 중에서 여기에 수반되는 인건비라든지 경비 이런 등등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목표를 저희들이 7억 4,80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 저희들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로 13억 3,000만원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5억 8천 정도를 초과 달성한 그런 실적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기에 붙은 대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손익 분석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건축물까지 저희들이 이걸 건물까지 감가상각을 한다면 이것이 이익이 여기에서 보고드린 것에서 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지와 건물은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는 비용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고

○李東奎委員 임대료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理事長 趙學來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상각이 안 나가고 여기에 계산하지 않고 순전히 사업을 해가지고 영업활동을 해가지고 들어온 영업수익에 수반되는 비용을 공제한 액수가 바로 손익이 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지금 손익은 인건비를 다 털어낸 비용입니까?

○理事長 趙學來 예, 그렇습니다. 공제하고 남은

이익금입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인건비가 '99년도 현재 실적을 보면 16억 4,818만 3,000원 경비까지 같이 포함된 겁니까? 인건비만 말합니까?

○理事 尹熒老 인건비는 8억 5,300입니다.

○李東奎委員 이것이 지금 인건비죠? 인건비가 8억 5,300인데 현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理事 尹熒老 6만 2천여 명입니다.

○李東奎委員 그것은 회원이고 우리 직원을 얘기한 겁니다.

○理事長 趙學來 저희들은 여기에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고용직하고 일반직 통틀어서 행정요원까지 45명 정도로 시간강사

○李東奎委員 전문직 강사는 어차피 우리가 돈을 지급해줘야 되니까 그것을 통틀어서

○理事長 趙學來 통틀어서 그 인건비까지 합한 것이 여기에 8억 5,300만원입니다.

○李東奎委員 그것까지 합친 것이 '99년 실적이라는 것이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理事長 趙學來 그렇습니다.

○李東奎委員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8억 5,300만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洪起瑞委員께서 물었어요. 그 부분을. '98년도와 비교해서 '98년도는 7억 7,100만원이란 말이에요. 나간 게, 그런데 금년도 인원이 아까 몇 명 늘었다고 했죠? 12명

○理事長 趙學來 아닙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러갔습니다. 제가 생각이 안 나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저희가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든지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든지

○李東奎委員 인원수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것이다 이 얘기죠? 이따가 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理事長 趙學來 위원님들께 한말씀 첨언드릴 것은 여기 인건비라는 것은

○李東奎委員 이따가 오면 그 얘기를 하자니까요. 자료가 오면 그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우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잠깐 보다가 이 앞에 매점에 일일판매부를 달라고 해서 봤더니 이 통계자료가 4월부터 6월까지 중간 걸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총 순마진만 봤더니 345억 97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3개월간 해서 345만원, 350만원 반올림해서 350만원이라고 보고 350만원이면 그것이 4로 곱해보면 1년이면 약 1,400만원 정도 되죠? 약 1,400만원 정도 되는데 1,400만원에서 인건비하고 나간 것 계산해 가지고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면 지금 일일판매 그런 상점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으면 맞다고 대답하시고 틀리면 틀리다고 대답해 주십시오. 비효율적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서 고정적으로 투입을 해서 판매하는 실적과 그것을 임대를 줬다고 가정했을 때 약 40만원 내지 50만원의 임대료를 월별로 받는다고 치면 그러면 사오십만원을 받아도 1년이면 얼맙니까? 한 500만원 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400만원 마진에서 인건비 제해버리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매달려야 되고 모든 인력을 투입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한 매점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팀들이 다 문제를 같이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를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理事長 趙學來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임대를 줬었습니다. 임대를 주니까 문제가 임대수익금 자체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직영하는 것보다는 미달될 것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했고, 두번째는 거기에서

○李東奎委員 임대를 줬습니까? 전에

○理事長 趙學來 그렇습니다. 당초 '97년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발족하기 이전에

○李東奎委員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죠. 그때는 아까 이사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서두에 '97년도 실적하고 '99년도 실적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때의 현황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그건 형평에 안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理事長 趙學來 스포츠용품 직영하는 것과 위탁

했던 것과의 차이점, 이점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그 부분은 논리가 안 맞는 얘기니까 다른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理事長 趙學來 그 당시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를 해야 우리가 직영하는 것의 이점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李東奎委員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理事長 趙學來 그래서 첫째가 수익금에 있어서 문제고, 두번째로는 거기에서 서비스가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못하다, 다시 말해서 회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것을 해지를 하고 저희들이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스포츠용품에서 여기에서 스포츠용품하고 개인용품, 락카 이걸 다해서 1억 2,4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금년 총 판매량, 총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죠?

○理事長 趙學來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스포츠용품 거기만 해가지고 3,000만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번째로는 그 용품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와서 한 10% 정도 염가로 싸게 이걸 회원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금년도 목표가 3,000만원 정도예요? '99년도 목표가? 그러면 잠깐만 보십시오. 지금 이사장님 설명한 것과 안 맞습니다. 지금 원장을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3개 장부를 가지고 와서.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3개를 가지고 와서 다 계산을 해보니까 약 순수마진이 1,4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1,2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 그러면 첫달 남은 것을 플러스 해봐야 절반도 못 미칩니다. 순수마진이. 어떻게 3,000만원 목표를 둔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순수마진을 보면 지금 대장을 보고 뽑아보니까 편차를 뽑으니까 1,500만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3,000만원이 나와요? 목표를 그렇게 터무니없이 잡는다고 됩니까? 그것은 턱도 안되는 소립니다. 지금 뽑아봤는데요 이사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순수마진이 3,000만원 같으면 대단한 수익사업입니다. 대단한 수익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태여 위탁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죠.

○理事長 趙學來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이 스포츠용품하고 그 다음에 회원들이 드라이하는 게 있습니다. 여성들이 드라이로 머리를 만지는 것 그것하고 자판기를 저희들이 직영으로 합니다.

○李東奎委員 그것 말고 스포츠용품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사장님께서 스포츠용품만 가지고 얘기하다가 중간에 다른 것을 끼워들이면 안되죠. 왜 위원들을 무시하고 그러세요? 이사장님!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저는 지금 스포츠용품 판매점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자판기나 드라이 사용하는 금액은 여기에다 포함시키지 않고 하는 뜻입니다.

○理事長 趙學來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사과를 드리고 스포츠용품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만들어지는 대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것도요? 그러면 전부다 하나도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감사를 받는 수감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를 온다고 사전에 통보를 했을 텐데 최소한도 기본적인 이런 것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감사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의하고,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수감태도가 아닙니다. 제 질문을 마치기 전에 위원장님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수감태도가 이러면 수감이 될 수 없으니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도 지금 오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憲九 理事長님! 시설관리공단이 꼭 이익을 남기기 위한 사업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

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자료는 빨리빨리 가져오셔야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빨리 끝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답변하실 때 좀 간단하게 명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뒤에 계신 분들은 우리 행정기구로 하면 몇 급쯤 됩니까?

○理事長 趙學來 과장입니다. 과장이 6급이고

○委員長 李憲九 우리 행정직으로 하면 5급입니까?

○理事長 趙學來 아닙니다. 6급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그러면 뒤에 계신 분들은 답변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감사장에서는. 제가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이사장님이나 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전달해서 발언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기시킵니다.

○李東奎委員 제 질의가 안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고 질의 끝나기 전에 환기시켜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아직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理事長 趙學來 위원님! 저희 스포츠용품 판매 계획이 제가 아까 3,000만원 목표라고 했는데 여기 2,897만원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목표량이 2,800만원 정도

○理事長 趙學來 2,900만원 정도, 2,897만원이니까 2,900만원

○李東奎委員 이천팔구백만원 정도 된다는 거죠? 이천팔구백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순수마진을 계산해 보니까 이천팔구백만원이 안 나갈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자판기하고 다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理事長 趙學來 자료에 나온 것 10월 현재로 말이죠 마진율이 21.94%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가지고 1,282만 3,000원입니다.

○李東奎委員 9월까지 순수마진이 그렇게 나왔다는 말입니까?

○理事長 趙學來 10월말입니다.

○李東奎委員 1,282만 3,000원? 그러면 어떻게 목표량을 하겠어요? 어떻게 목표량을 따라가겠어요?

○理事長 趙學來 금년도에 저희가 목표라는 것은 2,8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이것은 매상분은 저희들이 지금 10월말 현재로 5,700만원입니다. 5,700만원이 매상고입니다. 총 매상고. 순수마진은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다 2,897만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실제로 10월말 현재로 매상 실적은 5,700만원으로 달성했습니다.

○李東奎委員 마진이 얼마나

○理事長 趙學來 마진은 그래서 21.94%에 해당하는 1,282만 3,000원입니다.

○李東奎委員 그렇죠? 그러면 당초에 예산에 책정을 했던 계획보다는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이 아닙니까? 제 말이 맞죠?

○理事長 趙學來 목표는 초과 달성되었는데 매상고는 초과 달성되었는데 이익만

○李東奎委員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전체 매상고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매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손익 계산을 했을 때 순이익이 우리한테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분양을 해가지고 임대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임대료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이익과 또는 서비스의 환산 이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또는 오히려 우리가 분양을 해가지고 임대를 줬을 때보다는 지금 마진이 훨씬 좋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어요.

○理事長 趙學來 스포츠용품점에는 월 임대료가 29만 1,000원입니다.

○李東奎委員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理事長 趙學來 이것은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은 액수입니다.

○李東奎委員 그것이 '97년도 상황이죠? 여기에다 사오십만원 받고 임대를 놔보세요. 아마 불티나게 팔릴 겁니다.

○理事長 趙學來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실제치입니다. 29만 1,000원은.

○李東奎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만 합시다. 그런 사항이라면 사오십만원을 놓고 우리가 1년에 순수 한 오륙백을 벌어들인다고 가정할 때 전화세 안 나가죠. 기타 거기에 따라가는 상하수도세 안 나가죠. 그 비용을 우리가 임대료로 받을 때는 순수비용이 오륙백 되는 겁니다.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바로 손익 모든 것을 비교를 했을 때는 지금보다 오히려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그것이 과연 서비스 문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비스에서 얼마나 뒤떨어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서비스 질이라든지 또는 품질의 질이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理事長 趙學來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말이죠 거기에 요원을 별도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다른 걸 예를 들어 회원관리실이라든지 안내실의 안내인원을 줄여 가지고 그 인원을 저쪽으로 보내서

○李東奎委員 결과적으로 그 안내실에 한 사람이 없어져야 되지 않아요?

○理事長 趙學來 그래서 그 인원을 재배치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아니요. 지금 이사장님!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시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것은 그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합리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해봐서 저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임대를 계약해서 주면 오히려 신경 안 쓰고 덜 쓰는 거죠. 임대를 해가지고 서비스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볼 의사라든지 생각은 전혀 안 해보셨죠?

○理事長 趙學來 이것은 말이죠 당초에 위탁을 해가지고 임대를 줘가지고 운영하던 것을 저희들이 직영을 한 게 불과 1년 되었습니다. 이제 2년차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환원해서 임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은 좀더 운영을 해보고 다시 한 번 분석평가를 해가지고 그때 다시 한 번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써 2년 동안 했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크게 득을 못 본 거죠. 첫 운영에 있어서는 크게 득을 못 봤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우리가 분양을 했다고 보편적으로 동네에 돌아가서 점포를 내가지고 임대를 놔서 임대에서 얻어지는 수익하고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순이익금하고 또 거기에서 따라내야 되는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고 그 나머지를 통계자료를 털면 우리가 이익을 못 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까지 1,200만원인데 12월까지는 아직 두 달이 남았어요. 두 달이라야 300만원 기껏 올린다고 합시다. 순수마진이 1,500만원인데 그러면 1,500만원 가지고 인건비가 12월 것 빠져나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년도별로 계산하면 한 사람 인건비가 따라나가야 되고 공공요금도 따라나가야 되고 기타 세금이 따라나가야 되고 오히려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수지에 맞는, 다만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품질, 용품 관리하고 감독하는 데 달려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종로구의 구 수입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방편과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앞으로의 생각이라든지 지금까지 얘기에 대해서 그냥 낱낱이 얘기해 주십시오.

○理事長 趙學來 저희들은 회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회원들에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충족한다는 것밖에 그것만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익이 얼마다 손익에 급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李東奎委員 그래요? 그러면 서두에 그렇게 이사장님께서 말씀대로면 최초에 서두의 말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최초에 물

었을 거예요. 뭐라고 물었느냐면 분명히 그러셨어요.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수익성과 공공성의 확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성은 여기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공공성은 뭐고. 물론 주민복지 증대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은 복지증대 쪽으로만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왜 합리화시키려고 하냐는 말입니다. 좀더 검토해서 이것이 우리한테 바람직하고 옳다고 생각이 되면 갈 의사가 없느냐는 말이죠.

○理事長 趙學來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의 견해 차이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주장하신다고 해가지고

(○安載弘委員 議席에서 - 지금 李委員께서 말씀하시는 발언의 취지가 매점을 판매해서 들어온 수익의 차이니까 '98년도에는 직영하지 않고 렌트를 하셨잖아요? '98년도에 관리공단에서 렌트를 해서 발생한 수익으로 번 비용과 '99년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그 시설을 직영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자료로 뽑아서 위원님들에게 하나 갖다드리세요. 그러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것을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고 더불어서 공단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비교 데이터를 李東奎委員님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주면 그 데이터를 보면 간단하게 알 것이 아닙니까? 이사장님께서 구구절절 설명을 안 하셔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알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런데 安委員님! 지금 이사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이 검토라든지 이런 의사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같이 들으셨습니다마는 검토해볼 의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끝까지 합리화시키고 주장을 해서 그대로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검토해볼 의사가 없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1년째 이제 2년째입니다. 한 해도 다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종전에 임대하던 것을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또다시 임대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운영을 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신 대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서 운영방안을 새로 모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李東奎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끝까지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理事長 趙學來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4번에 보면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대, 대관사업을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理事長 趙學來 그것은 대관입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니까 임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꼭 거기에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그런 개념에서 바라볼 때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이익이고 어떤 것이 더 우리 주민에게 좋은지 이런 것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理事長 趙學來 알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洪起瑞委員! 질의하십시오.

○洪起瑞委員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수감현황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외부감사 및 자체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동네에서 조그마한 친목회를 하더라도 자체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우선 선순위가 자체감사를 받고 후순위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감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인데 한 번 해명을 해 보십시오.

○理事長 趙學來 저희들이 자체감사는 감사실장

이 비상임감사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장이 지금 자체감사를 해야 하는데 여의치 못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수시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족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자체감사라도 받아봐야지 신뢰감이 가고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간부회의 때마다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실행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외 여기 회계에 관련된 사항은 공인회계사에 의뢰해 가지고 감사보고서는 이미 제출했습니다.

○洪起瑞委員 아니, 감사보고서는 나와 있는 것을 본 위원도 받아서 알고 있지만 사실 자체감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법인 설립할 때 감사를 몇 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저희들은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이사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이사는 상임이사 한사람하고 비상임이사 두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법인설립을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정관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예,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우리가 법인을 하려면 5인 이상부터 10인 이상 최하 5인 아닙니까? 이사는

○理事長 趙學來 상법상에는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기업상의 내무부 승인은 상임 또는 비상임 감사 한 사람 그 다음에 상임이사 한 사람 비상임이사 두 사람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洪起瑞委員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을 너무 한정되게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감사도 한번 하지를 못하고 있고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임이사는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부득이 어쩔 수 없지만 비상임이사는 굳이 우리가 3명, 4명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비상임이사를 두어서 조언도 받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회를 보니까 공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공직자들로만 구성한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구민의 대표인 의원도 여기에다가 한 분 내지 두 분을 넣어드리게 되면 여기 와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장시간 논란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전에 일어난 사항을 우리가 의회에서라도 여기 이사에 속해 있는 의원이 이 사항을 현황설명을 하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구민의 대표인 의원을 이사로 임명할 의사는 없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의원님들을 여기 공단의 이사로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겸직금지조항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을 모시지 못하는 그런 현행법상의 규정 때문에 모시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원은 허가기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한다 하더라도 내무부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시에다가 승인권이 위임되었습니마는 시장께서, 시에서 그런 현행법상의 승인을 해주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洪起瑞委員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자산이 연간 몇십억에 달하는데 이사회 개최를 서면결의를 받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회 개최도 않고 서면으로 눈감고 도장만 찍는다는 얘기인데 이런 분들이 이사로 앉아있기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잖아요.

○理事長 趙學來 저희들이 서면감사를 다 받은 것은 아니고 주요 사항은 회의소집을 합니다. 최근에 와서 저희들 정원 승인하는 것 그 문제 때문에 급하고 그래가지고 서면결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洪起瑞委員 이사장님!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이사가 전부 네 사람입니다. 이사장님까지 해서 그러면 상임이사 한 분하고 비상임이사가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 네 명 모이는 게 어려워서 서면결의를 받는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해가 안갈

겁니다.

○理事長 趙學來 앞으로는 서면결의를 지양을 하고 정식 이사회를 소집해 가지고 정식 이사회에 부의해 가지고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렇게 하고 서면결의는 없어야 되고 또 이사 정족수도 늘리세요.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곤란하다 그렇더라도 모든 것은 5인, 7인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4인이면 동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의결합니까? 네 명인데 두 사람은 반대하고 두 사람은 찬성하면 이사장 손드는 쪽에 결의할 것 아닙니까? 방대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사가 네 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理事長 趙學來 가부 동수일 때는 이사장이 의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장이 결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이사장 한 분에 상임이사 한 분이면 다른 이사들은 할 필요도 없죠. 외부 이사들은 반대해 봐야 상임이사하고 이사장이 옳소하면 10건이면 10건 다 가결되고 한 건이라도 부결되겠어요?

○理事長 趙學來 지금 현재 우리가 비상임 이사는 구청의 행정관리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우리가 제의한다고 해 가지고 결정하지는

○洪起瑞委員 아니죠. 그것은 하나의 이론상의 문제이고 누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둘이 상임이사에 이사장이고 이사장한테 표결권이 한 표가 더 있고 비상임이사가 와 가지고 문제점을 들추어내서 아무리 부결시키려고 해도 상임이사와 이사장이 이것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가결되는 거잖아요. 어느 이사회가 이렇게 저기를 해 가지고 상임이사들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 대로 이끌어 가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도 가부 동수가 되면 이사장이 손들어갖고 하겠다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소리입니다.

○理事長 趙學來 알겠습니다. 정족수 문제는 승인기관과 한번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숫자를 늘리는 이런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여기 등기부등본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李東奎委員!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관련된 사항인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 자료 속에 포함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사진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河撤昇 監査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차장 사업은 사양추세이며 결손시에는 공단 운영이 압박을 받을 것 같고 위탁시보다 인건비 부담으로 실제 수입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내용을 尹熒老 理事님이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점이 많이 걱정됩니다. 주차장 사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의견을 붙여서 구청에 건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尹熒老 理事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尹理事님께 묻습니다. 이런 부분도 구청에 질의를 하고 물어가지고 의결사항으로 받는 것입니까?

○常任理事 尹熒老 常任理事 尹熒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회의를 논의하면서 주차장사업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파공사에서 하는 것도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그것은 대행을 구청에서 나중에 위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실익이 있겠느냐 또는 앞으로 운영상 문제가 없겠느냐는 것을 구에다가 제가 의견을 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공단이사회는 필요없지 않아요? 그냥 구청에다 질의하고 의뢰해서 거기서 받아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공단이사회 자체에서 그런 감사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라는 분이 이런 것은 구청에 문의해서 질의를 받아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지금 기능 자체나 역할을 공단이사회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그것 같은데 감사가 지적해 주면 이사회에서 다시 검토해서 거기서 결의를 봐야지 왜 구청에다 문의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理事長 趙學來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정관상에 사업의 대상으로써 주차장 운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그것을 개인에게 위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 공단에서 인수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문제를 잠깐 거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그런 지적을 해준 것에 대해서 과연 구청에서 이것을 우리한테 정확하게 넘길 것이냐 안 넘길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타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결정하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李東奎委員 사실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주차장사업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읽어준 대로 주차장 사업은 하향추세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것을 우리 공단에서 운영을 잘못할 경우에는 공단 운영에 압박을 받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인건비 부담도 받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尹熒老 理事님께서 이 주차장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을 의견을 붙여서 구청에다 물어보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토의할 사항이 아니죠. 구청에서 물어갖고 한다면 그러니까 기능 자체가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이죠. 지금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자체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이사회의 기능을 망각하고 상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것이죠.

○理事長 趙學來 그것은 감사가 지적을 그런 점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李東奎委員 그러니까 감사가 지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사회에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구청에다가 문의를 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理事長 趙學來 우리가 이사회에다가 부의를 할 때 구청에서의 의견이라든지 또 저희들 나름대로 수집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이사회에다가 다시 부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李東奎委員 그런 내용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여기 기록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안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발견한 것은 이런 부분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상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잠시 한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李東奎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질의하십시오.

○安載弘委員 安載弘委員입니다. 공단 감사규정에는 연 1회 정기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理事長 趙學來 예.

○安載弘委員 이사장님! 조금 전에 洪起瑞委員님께서 외부감사뿐만 아니라 내부감사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2년쯤 되었으니까 감사계획을 세워서 내년초에라도 감사를 한번 하시도록 하시고 지금 중요한 것이 시설관리공단 현재 인원이 예년에 비해서 무려 170%가 증원이 돼요. 이 이유가 구민회관의 시설을 관리하게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러한 인원을 증가받기 위해서 이사회를 하신 적이 있는데 서면결의를 받아 가지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洪起瑞委員한테 말을 들었는데 최초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인원을 요구하시지 않았나요?

○理事長 趙學來 저희들이 그 이전에 다른 안건으로 이사회를 소집해 가지고 예비적으로 그 사항을 별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검토를 받아 가지고 윤곽이 다듬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사항을 가지고 이사회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미 이사님들께서 다듬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해서 서면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입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정원 증원 대상이 54명으로 결정이 되셨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예.

○安載弘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이 54명에 대한 채용은 완료하셨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2

월 중에 채용계획을 세우겠다고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安載弘委員 그러면 그 채용계획이 어떤 방법으로, 공개채용입니까? 특별채용입니까?

○理事長 趙擧來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문직이라든지 고용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공단 자체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이사회를 개최해 가지고 우선 실기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선생을 채용한다고 하면 우선 수영을 실기를 보고

○安載弘委員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전문직이나 고용직, 기능직이든 어떤 것이든 특별채용을 하실 겁니까? 공개채용을 하실 겁니까? 먼저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십시오.

○理事長 趙擧來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라고 할 수 있겠죠. 공개방법으로

○安載弘委員 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공개채용을 할 것이냐 특별채용을 할 것이냐, 지금 공개채용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면 공개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시험의 일자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공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理事長 趙擧來 그런 자체계획을 세워 가지고

○安載弘委員 아직은 세우신 것이 없습니까?

○理事長 趙擧來 없습니다.

○安載弘委員 일반 신규채용 인원을 보니까 2급이 한 사람, 4급이 네 사람, 5급이 두 사람, 6급이 세 사람이 증원되지 않습니까? 전문직을 제외하더라도 그러면 일반직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실 예정입니까?

○理事長 趙擧來 일반직 채용을 저희들이 예정을 우선은 구청에서 추천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安載弘委員 그것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단직원을 그것은 특별채용에 해당되는 것인데 특별채용을 하려면 특별채용에 해당하는 요건에 맞아야 돼요. 이사장님! 그런데 어떻게 공단직원을 채용하는데 구청에 의뢰를 합니까?

○理事長 趙擧來 구청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것은 부적합한 사람을 받을 이유는 없는 것이고 우리 공단 내부의 인사규정에

○安載弘委員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구청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전부 관리공단으로 와요. 자진해서 명예퇴직을 한 사람이나 정년이 되어서 퇴직한 사람들이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일반직원조차 특별채용을 하되 특별채용 규정에 맞추지 않고 어떻게 구청의 추천을 받아서 직원을 채용하느냐고요.

○理事長 趙擧來 安委員님! 그 말씀은 우선 저희들이 구청에 추천 의뢰할 때는 우리 규정에 맞는, 예를 들어 학력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연령,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열거를 해 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은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채용을 하고 전문직이나 기능직이나 고용직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理事長 趙擧來 저희들이 전문직의 경우도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다 수시로 추천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런데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지금 무엇을 착각하고 계신데 시설관리공단 인사예규에 의하면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채용이고 하나는 공개채용입니다. 공개채용은 일반적인 원칙에 의해서 장소나 시험방법을 공개해야 하고 특별채용의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그 직이 특수직 이거나 그 직에 전문직 이상의 자격으로 3년 이상 근무해서 특별히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거나 자격증이나 경력을 소유했거나 또는 긴급 충원이 필요할 때 특별채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직을 구청에서 추천 의뢰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도 특별채용의 한 방법이겠지만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인사의 형평성이나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채용이 아닌 공개채용을 권고합니다. 이사장님! 답변하십시오.

○理事長 趙擧來 우선 저희들이 공개채용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 예상되는 것이 시기가 너무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를 출제의뢰를 하고 시험관리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공단의 요원 가지고는 그러한 방대한 작업을 전문적인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특별채용 방식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볼 예정인 것입니다.

○安載弘委員 특별채용이 아니면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이사장님께서 내 얘기를 혼동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2장 제8조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원 신규 채용은 공개채용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지금 보고 계시죠?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채용에 의한 채용이 극히 곤란한 경우」 두번째「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소지자」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세번째는 「전문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해서 일반직으로 인정한 경우」이것은 자체 직원입니다. 그 다음에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그 밑에는 기타 사항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사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공단직원 2급, 4, 5, 6급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을 하세요.

○理事長 趙學來 그런데 9호에 보게 되면 말씀이죠. 공무원 경력

○安載弘委員 9호가 없는데 여기는 9호가 없습니다.

○理事長 趙學來 최근에 가제가 안되어 있는 모양인데 9호에 보면 공무원 경력 소지자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99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安載弘委員 '99년에 신설된 조항이 거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자료를 제대로 갖다 줘야지 이런 것을 갖다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8호까지밖에 없잖아요. 이사장께서 주신 이 시설관리공단 규정에는 다행히도 9호가 있네요. 큰일날 뻔했네. '99년 11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 단규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전화해서 운영과장이 전화해서 가제를 하도록 하게 하고 설사 공무원 경력소지자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직원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소송 자치단체장이 추천한 경우라 하더라도 적어도 인사의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이 마땅한 것입니다. 9호에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장께서는 현재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채용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실력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공단을 운영하는 것이 공단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직이 전부 구청 출신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할 때는 주임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장 이상만 가져왔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간부 4명이 모두 종로구청 출신이세요. 여러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때는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물론 趙 理事長님이나 尹 理事님 외 모든 직원들도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치시대가 이어지면 질수록 소위 운영사업이나 수익사업의 규모는 점점 커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여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도 합리적인 운영과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그러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직원이 상부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그야말로 규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9명이나 되는 직원이 그냥 내려올 것이 아니라 공개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도 퇴직한다면 공개적으로 시험에 응시한 다음에 채용하는 것이 공단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理事長 趙學來 고맙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개채용을 고려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9호에 의한, 구청장에게 추천을 의뢰해서 직원들을 다 받겠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9

호에 의해 가지고 하면서도 安委員님께서 조언하신 그런 이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9호에 의한 방식으로 이번만은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安載弘委員 그리고 전문직이나 고용직, 기능직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그것입니다. 조금 전에 일반직을 채용할 때는 시험의 날짜라든가 시험의 방법, 출제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공개채용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9호에 의해서 추천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직이 아닌 전문직이나 고용직이나 기능직에 대한 증원이 45명이나 돼요. 그러면 이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전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理事長 趙學來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현재까지 시험을 본다든지 또는 안 보고도 그런 어떤 공개채용 방법을 취하는 것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는 전문직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실기를 보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회를 저희들이 서울권역 안에 있는 대학에다가 추천을 의뢰를 합니다. 추천을 해주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실기시험과 면접과 이렇게 해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서류심사도 하고 면접도 하고 실기시험도 보고 공개적으로 하겠다 각 대학의 추천을 받아서

○理事長 趙學來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요원을 확보하고 기능직 역시 고용직도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공개를 하면서도 잡음 없도록 이번 채용 인원을 잡음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리고 중요한 게 일반직은 직급별로 급수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전문직은 5개의 등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문직에서 18명을 추가로 선발하는 것은 몇 등급을 선발할 예정입니까?

○理事長 趙學來 밑에 하위직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5등급이요?

○理事長 趙學來 예, 5등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기능직이 7개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몇 등급에 해당이 됩니까?

○理事長 趙學來 그것은 저희들이 봐가지고 경력이라든지 자격증 소지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위직급 순으로 주로 하고 거기에서 좀 관리요원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경력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그 자체에서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답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능직과 전문직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직 9명에 대해서는 종로구청의 추천을 받아서 채용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理事長 趙學來 예,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일반직에 대해서는 말이죠 일반직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특별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50%만 공개채용을 시험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아마 그러면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대졸자들 이상 되는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종로구청의 하부조직이라고 해서 또는 별도의 자회사라고 해서 구청의 직원들을 그대로 추천을 해서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50%를 구청 직원을 임용하고 나머지 4명이나 5명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을 합시다.

○理事長 趙學來 사실 저희들이 경험도 없고 시기도 촉박하고 해서 사실 말씀 조언해주신 그것을 결정하기가 무척 고민스럽습니다.

○安載弘委員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예, 安載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朴鍾植委員! 질의하십시오.

○朴鍾植委員 저는 간단하게 지금 스넥코너가 수

의계약된 겁니까?

○理事長 趙學來 예, 그렇습니다.

○朴鍾植委員 어떻게 수의계약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理事長 趙學來 원칙적으로는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지하에 있는 스넥코너가 사실 몇 년을 거듭하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사실 부진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그것을 공개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鍾植委員 그런데 장사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구민생활관 규모에 이런 정도의 회원이 많이 오는 곳이라면 장사가 잘 됩니다. 장사가 잘 되고 앞으로도 공개입찰을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팔각정 그런 데에도 그렇습니다. 세 분이 입찰을 해 가지고 두 분이 유찰이 되었는데 '광화문가든'이랄지 평창동 '장군'이랄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어떻게 그분들만 하고 남궁혜경 씨인가 딱 세 분만 입찰에 응해 가지고 남궁혜경 씨가 13억 얼마에 입찰이 되었다는 것은 먼저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 조금 불편한 심기를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입찰에 두 분 인적사항이 우리 종로구에 너무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광화문가든'도 그렇고 '장군'도 그렇고 딱 이분들만 셋이 입찰에 응했다는 것은 뭔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마로니에 매점도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을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입찰에 응하도록 해야 되니까 신문에 조그맣게 내버리면 못 보고 넘어가 버리니 입찰할 때 나한테 통보해주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입찰에 많이 응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팔각정이라고 좋고 규모가 큰 업소지만 조그맣게 신문에 공고를 하면 못 봐요. 일간지에 공고하면. 이런 것은 공고할 때 우리 의회에도 통보를 해서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자기 지역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 큰 영업체를 한번도 아니고 처음에 유찰을 했다가 두번째 공고를 해서 여기에 응찰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두번째까지 했는데 응찰자가 세 사람밖에 안된다는 것은 공히 의아스러운 생각을 의원으로서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를 앞으로 바라고, 그리고 공단운영 조례(안)은 우리 의회에서 다루었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사실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공무원들은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지역의 주인들은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이 뽑아준 우리 의원들이에요. 조례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당연히 이사진이 유급이든 비유급 이사진이든 감사진이든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단운영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할 점을 제안을 해 가지고 조례(안)을 다시 좀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 선임 문제랄지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또 부족한 점을 제안을 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할 것을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입찰 시에는 반드시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주십시오. 의회 앞으로. 그래서 우리 19개 동이 지역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우리 종로구민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朴鍾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朴鍾植委員께서 제안하신 공단조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차후에 다시 상의를 해가지고 개정될 내용이 있으면 개정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간 관계로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에 아까 지금 강사료 나간 것하고 회원수, 수익금액 이렇게 뽑아다줬는데 세상이 이렇게 부실한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저희들한테 자료라고 갖다주는 겁니까? 여기 보면 1, 2, 3, 4, 5, 6 해서 10월까지 해놓고 뒷장에다 1, 2, 3 해서 10월까지 해놓고 가만히 검

토를 해보니까 앞장 종목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은 뒷장 종목에 들어가 있어요. 종목 칸이 부족해서 이렇게 해준 겁니까? 이것은 누가 이런 걸 서류로, 이런 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와서 무슨 일들을 한다고 말이야 정신 넋나간 것이 아닙니까? 이거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직무유기. .위원들을 데리고 기만하고 말이야 이것을 자료라고 주는 겁니까? 이것을 국민학교 학생들한테 갖다줘보세요. 이렇게 뽑아다 주나. 자료라고 제출해주려면 똑바로 제출해줘야지 종목을 한 칸에 해서 쭉쭉 다음 장까지 1월에서 10월까지 해주든가 같이 품목이 종목이 다 안 들어가니까 뒷장에 넣어주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理事長 趙學來 위원님! 죄송합니다.

○李東奎委員 이렇게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헛시간 보내고 있는 거예요.

○理事長 趙學來 이 부분을 이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李東奎委員 됐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장에 보면 3월달에 검도 243명 회원수가 243명에 강사료가 217만 4,340원이 지출되었네요. 그런데 그때 수익금은 1,239만 6,000원이 수익금이 되었습니다. 비율은 5대 5의 비율로 따지는 겁니까?

○理事長 趙學來 저희들이 이 검도는 회원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3대 7로 삼칠제로 했습니다.

○李東奎委員 검도는 삼칠제고 그러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달에 보면 3월달에는 243명이었습니다마는 6월달에는 239명입니다. 인원이 좀 떨어졌죠? 3월달보다. 그런데 3월달에는 211만 7,340원인데 6월달에는 216만 7,140원입니다. 오히려 회원수가 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삼칠제의 비율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해보세요.

○理事長 趙學來 3월달에는 강사료가 217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6월달에는 216만 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6만 7,000원이고 7만 4,000원이고 해서 한 8,000원 정도

○李東奎委員 삼칠제의 비율로 보편적으로 나눈 거란 말이죠? 이해가 가네요. 본 위원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유도가 1월달에 58명에, 유도는 5대 5라고 그런 것 같은데 비율이

○理事長 趙學來 예, 5대 5가 맞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죠? 아까 본 것 같은데 5대 5 비율이 맞지 않네요. 강사료하고 수익금하고 16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임의대로 강사료를 더 준 것이 아닙니까?

○理事長 趙學來 아닙니다. 당월 수익금이 당월 비교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 수익금을 차기 달로 넘어가는 이런 사례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조금 변동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5대 5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李東奎委員 그것은 맞지 않은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각자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똑똑 떨어진다는 겁니까? 이게

○理事長 趙學來 예, 그렇습니다.

○李東奎委員 어떻게 다른 것은 다 맞아떨어지는데 이것 하나만 그래요?

○理事長 趙學來 지금 위원님! 떨어지지 않는 것이 어떤 건가요?

○李東奎委員 1월달 거라고 했잖아요. 1월달 유도가

○理事長 趙學來 그래서 그 자료를 정확하게 산정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李東奎委員 그 밑으로 내려가서 2월달 보세요. 2월달에 보면 헬스 659명인데 헬스는 100만원씩 책정합니까? 전문강사료를 책정해 가지고

○理事長 趙學來 이것은 우리가 헬스를 담당하는 직원이 선생이 세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문직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는 포함이 안되었고 이것에 대한 인건비 강사료는

○李東奎委員 두 사람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봉급에서 나가고 여기에는 한 사람 것만 들어간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0만원씩이다 이겁니까?

○理事長 趙學來 예, 그렇습니다.

○李東奎委員 두 사람은 우리 종로구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종로구 소속은 전문직이면 봉급이 얼마입니까?

○理事長 趙學來 이것은 봉급이 말이죠 연봉으로 정규직원 봉급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정규직 봉급 수준에 맞춰서 준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축구를 보니까 1월달부터 계속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축구가 없었네요? 없다가 7월달에 발생되었는데 7월달은 한창 최고 더울 때가 아니에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26명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247만원 이것도 5대 5의 비율로 아마 나눠지는 것 같은데

○理事長 趙學來 예, 그렇습니다.

○李東奎委員 워낙에 강사료 수익이 안되겠네요. 이 정도 되면. 그러다가 8월달에 19만원 타가고 그 다음에 9월달에 19만 9,000원 정도 타가고 또 그 다음 10월달에 20만원 정도 타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축구 같은 게 됩니까?

○理事長 趙學來 지금 저희들이 축구를 7월달에 개설한 것은 특별프로그램으로써 이걸 처음 시도해가지고 6월달의 경우에는 26명이 등록을 해가지고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처음 개설해 가지고 26명으로 20명 이상 등록하는 것은 저희가 전체로 보면 성공적인데 지금 현재 조금 이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절기가 되고 그러면 이 숫자도 좀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축구가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계절변동이 좀 심할 것 같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습니까? 자! 다음 넘어갑니다. '99년 회원건의함 건의 내용 및 처리결과 그 부분에 보면 일부 넘기다 보니까 수영 부분에 있어서 '08시 회원' 해가지고 나왔는데 건의 회원이 '검도 수업을 오전 7시로 조정해 주십시오' 했는데 '건의했으나 공단사정으로 어려우니 06시에 맞춰달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네요. 공단사정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급적 많이 그쪽으로 이해를 해달라는 쪽으로 많이 나와있는데 공단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맞춰서 나가다보니까 그런 건의사항 같은 것을 제대로 다 못 들어주는 겁니까?

○理事長 趙學來 지금 저희들이 회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기존 프로그램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건의가 되면 수용을 합니다마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간이나 장소에 맞지 않으면 사실 다 수용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李東奎委員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각종 계약 현황을 보면 말이죠 각종 계약 현황 중에서 지금 현재 구민생활관 스넥코너 임대를 하셨죠? 그것은 왜 직영을 안 하시고 임대를 하셨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음식점을 직영한다는 것은 사실은 재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말이죠 계약서에 보면 계약자 나이도 없고 주소하고 성명만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시겠어요? 아무리 훑어봐도 안 보이는데 '갑. 임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21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을. 임차인 종로구 창신동 창신쌍용아파트 203동 1201호 정영은' 외에는 없습니다. 나이도 없고 이것 세살 먹은 사람한테 임대를 해준 겁니까? 아니면 다섯살 먹은 사람한테 임대를 준 겁니까?

○理事長 趙學來 이것은 미안합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등본을 하나 얻어다가 징구해다가 여기에 첨부해놓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이제서야 하겠습니까? 일반인 계약서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이렇게 써서 주는 것은 문제있는 것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대충 질의 마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李東奎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趙學來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수감을 하는 것을 지켜봤더니 상당히 수감태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아마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성의가 부족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사장 이하 모든 관계관들이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수감을 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얻었으리라고 봅니다. 내년 이맘때 수감태도는 좀 성실하게 해주셔야 되겠고, 하나 안타까운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이 체육장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구민 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주셔 가지고 그 설립 목적에 맞는 그러한 답변을 이렇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겠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일반직이나 기능직을 채용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가 종로구에 있기 때문에 혹여 정실 채용을 해가지고 다른 국가기관의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낙하산 식으로 내려와 가지고서 소위 퇴직자의 모임 단체가 되는 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주신 것을 차제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채용을 함에 있어서 공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安載弘委員 질의 안 끝났습니다. 중요한 서류입니다. 북악팔각정 입찰관계는 어느 분이 담당하셨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우리 공단에서 했습니다.

○安載弘委員 입찰참가신청서는 참가한 사람이 작성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예,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어느 분이 담당을 했습니까? 그 직원을 출석시키시겠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이 계약 담당 직원은 그 당시에는 녹지과에서 우리 공단에 파견을 나왔던 직원이 그 담당을 하다가 그래서 원대복귀가 되었습니다.

○安載弘委員 중요한 사항이 발견되었는데요 입찰참가신청서의 글씨가 똑같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한 감정가격이 444만원입니다. 1년에. 그런데 낙찰가가 얼마냐면 467만원이에요. 맞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예.

○安載弘委員 이 자료에 의하면 한옥전통매점이 467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연간. 그런데 감정평가액은 444만원이라고 나와있고 예정가격은 2,331만원으로 나와있어요. 맞습니까? 이사장님! 재미있는 것이 예정가격이 2,331만원이면 년 466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계약한 사람은 얼마에 계약을 했느냐면 467만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입찰참가신청서를 낸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신기호 씨이고 한 사람은 김영자 씨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에게 입찰참가신청서를 다 주셨는지 모르겠네.

○理事長 趙學來 安委員님! 여기 입찰등록 및 참가조서 해가지고 말이죠 저희들이 1번 2번 해가지고 두 사람이 등록을 받았습니다. 참가조서 이것은 우리 담당자가 등록을 받았으니까 담당자가 작성할 것이고 뒤에 입찰조서를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표시한 것과

○安載弘委員 그런데 그 자료가 저한테는 없어요.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줘야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죠.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고. 중요한 것은 입찰참가신청서가 중요하다고. 입찰참가신청서를 조금 전에 이사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이것은 입찰참가하는 사람이 작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입찰참가신청서는 입찰참가 신청한 사람이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왜냐하면 관련공무원이 대서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금액을 써야 되니까

○理事長 趙學來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여드리

는 입찰서의 필체가 각각이지 않습니까?

○安載弘委員 그런데 입찰참가신청서는 글씨가 똑같아요. 이걸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세요. 입찰참가신청서가 여기 붙어있는데 조금 전에 이사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입찰참가신청서는 참가신청자가 써야 된다고 했다구요. 왜 그러냐면 도장을 찍어야 되고 사용인감을 찍어야 되고 입찰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되고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되고 여기 공고내용에서 공고된 서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입찰참가신청서를 보면 글씨가 똑같다고. 누가 봐도. 그리고 입찰참가신청서의 글씨가 똑같으면서 입찰가격이 예정가하고 거의 비슷해요.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이사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이라는 것은 공단 입장에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응찰한 사람을 낙찰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理事長 趙學來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재미있는 게 입찰참가신청서의 글씨체가 똑같으면서 예정가격에 거의 근사하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理事長 趙學來 저희들은 이것을 입찰을 볼 때 예가를 공개를 했습니다. 공고를 할 때 여기에 예정가격은 얼마다 예가를 아예 공개를 했습니다.

○安載弘委員 예가는 당연히 공개하시겠죠. 법률에 의해서 공개하는데 우연의 일치로, 이사장님 표현대로 우연의 일치로 그 예정가격에 맞춰서 응찰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겠지만 어째서 입찰자가 각기 다를 텐데 어떻게 입찰참가신청서의 글씨가 거의 완벽하게 비슷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입찰자의 신청서의 글씨가 거의 완벽하게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理事長 趙學來 죄송합니다. 安委員님! 그것은 서면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安載弘委員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 구유재산 관련조례에 의하면 적어도 상호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라도 이러한 담합행위가 있었거나 관련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심증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理事長 趙學來 지금 그 직원이 토요일이라서 퇴근을

○安載弘委員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밝혀내야 합니다. 적어도 저렇게 입찰참가 신청서를 동일한 사람이 쓸 수 있었고 그 예정낙찰가가 예정가에 거의 근사했다는 것은 그 관련시설에 대해서 관련공무원이 개입했거나 공단직원이 개입했다는 심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신청서에 글씨를 동일한 사람이 썼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죠. 감사의 목적이 왜 있습니까? 적어도 부조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밝혀내야 하고

○理事長 趙學來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그 직원이 여기 있다가 공원녹지과로 원대복귀가 되었기 때문에

○安載弘委員 그 사람이 이원형 씨 맞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맞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공단에서 얼마를 근무했습니까? 그 공무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했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여기에서 8개월 정도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安載弘委員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理事長 趙學來 安委員님!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아니요. 그냥 하세요. 다른 위원님도 들으셔야 되니까 공개회의 석상이니까 앉아서 답변하세요. 우선 이원형이라는 직원이 몇 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근무했는지 확인하셔서

○理事長 趙學來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安委員님께서 입찰참가신청서가 동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찰참가신청에 있어서 신청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입찰공고번호, 입찰계획에 있어서 입찰건명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입찰 보증금 여기까지는 우리 직원이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본인이 사인을 하고 찍은 것 여기에

보증금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작성해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여자분들이 온다든지 하면 여기까지는 대서를 해준 것 같은 짐작이 갑니다. 여기에 계약 입찰 응찰금액이 얼마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安委員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정도로 무모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安載弘委員 좋습니다. 보증금률이 5%죠.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입찰보증금이 100분의 5라고 할 때

○理事長 趙學來 보증금이 여기에는 130만원입니다. 자기가 응찰하는 응찰금액의 5%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응찰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우리가 어떤 담합을 했거나 봐준다든지 그런 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安委員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잠깐만 기다리세요.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답변을 할 때 입찰참가신청서는 분명히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써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理事長 趙學來 원칙은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원칙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요.

○理事長 趙學來 원칙은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입찰에 어떤 좌우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입찰자의 어떤 편의를 도모해주는 그런 취지에서 직접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安載弘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영자 씨와 신기호 씨가 응찰을 했는데 이분들이 표기한 응찰서류를 지금 당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해준 내용에 '99년도 파견직원 현황 중에 제가 분명히 감사 시작 전에 '99년도 파견직원 중에서 모든 직원을 쓰라고 했는데 이원형이라는 직원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理事長 趙學來 그 파견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파견하고 있는 현재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安載弘委員 왜 그것이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기업회계를 할 때 이윤을 산출할 때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단에 파견된 구청 직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단에서는 적어도 순이익금이 예를 들어서 15억이 나왔다고 신문지상에 공포해요. 그렇다면 최근의 자본금을 제외한 5억에 대한 이자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자본운영계획을 짤 때 애초에 요구불 예금에 넣지 않은 융자금의 이윤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반신문에 공개하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이윤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그런 내용들은 사실 지금 이원형 씨 파견직원 기록에 들어가 있지 않고

○理事長 趙學來 安委員님이 말씀해주신 것 좌우지간 우리가 구청에서 파견직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인건비 부담을 안 합니다. 그런고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이익폭이 줄어드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安載弘委員 지금 입찰서를 복사해서 가져왔는데 재미있어요. 2,332만원을 쓰고 한 분은 2,335만원을 썼다고요. 이것 참 이러한 것을 보면 느끼는 것이 우리가 수사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정말 치밀하게 조사를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는데 우리 趙學來 理事長님께서는 그래도 구청에 근무하실 때 모범공무원이셨다는 그러한 소문이 자자하신 분인데 물론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잘 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어차피 입찰은 관련공무원인 이원형이가 개재되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이사장한테 있는 것이니까 입찰참가서를 관련 공무원이 쓰게 하는 것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게 이것을 대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면 할말이 없지만 적어도 공정하고 명명백백해야 하는 이런 입찰의 문제들이 게시판에 공고되고 동일한 직원이 입찰신청 참가서를 써주고 입찰서가 얼마가 차이 나느냐 하면 3만원의 차이가 나는 이러한 입찰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위원들이

지금 감사하면서도 의혹의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질문을 추가로 하기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安載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입찰등록 및 참가조서도 같은 사람이 썼고 입찰참가신청서도 같은 사람이 쓴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입찰서는 확실히 본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安載弘委員님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朴鍾植委員! 질의하십시오.

○朴鍾植委員 제가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남궁혜경 씨가 제출한 입찰서 하고 최광자 씨가 제출한 입찰서에 찍은 도장을 보면 목도장으로 간단하게 판 도장입니다. 그리고 도장 스타일로 봐서 혼자서 판 것 같아요. 그리고 입찰신청서에는 최광자씨도 다른 도장을 찍어놓고 남궁혜경 씨도 다른 도장 찍어놨어요. 어떻게 이렇게 소홀하게 될 수 있나요. 남궁혜경 씨 입찰서는 저도 공개입찰을 많이 해봤는데 어떻게 입찰서에 남궁혜경 씨와 최광자 씨가 서로 다른 사람인데 이 입찰서에는 목도장을 찍어놨는데 이 목도장 스타일이 같은 데서 판 도장이에요. 그리고 입찰신청서는 다른 도장을 찍어놨느냐 이거예요. 어디 말씀 좀 해보세요.

○理事長 趙學來 朴委員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찰등록신청은 그것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무방합니다. 막도장을 찍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는 입찰서, 입찰금액이 적히는 그 사항은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고 또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신청서 상의 도장이 다르다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朴鍾植委員 이 목도장 하나도 아무리 싸도 오육천원은 될텐데 아예 인감을 쓰면 될텐데 무엇 때문에 입찰서에다가 같은 목도장을 파서 썼느냐 그것입니다.

(○李東奎委員 議席에서 - 말하자면 한 사람이 팠다는 얘기죠.)

그것은 누가 봐도 같은 사람이 판 도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委員長 李憲九 朴鍾植委員님! 지금 이 입찰서에는 인감도장을 꼭 찍는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지금 남궁혜경 씨하고 최광자 씨의 인감증명서를 가져오세요.

○朴鍾植委員 그런데 입찰신청서에는 인감도장인가봐요.

○委員長 李憲九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틀리다 이것입니다. 입찰서에 막도장을 찍고서 입찰을 봤으니까 이것이 무효 아닙니까? 또 최광자 씨 것을 갖고 오세요.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다른 데는 아무 도장이나 찍어도 되지만 입찰서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는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예.

○委員長 李憲九 그런데 지금 인감도장은 이거거든요. 지금 입찰조서에는 이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입찰등록 및 참가조서에 대한 도장은 동사무소에서 발행한 인감도장이 아니고 입찰등록 및 참가조서에 인감을 별도로 신청을 했다 이것입니다. 朴鍾植委員! 보십시오.

(○千相旭委員 議席에서 - 사용인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理事長 趙學來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사용인감으로 했다면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지 사용인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지 이것은 기록이 되기 때문에 발언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수감태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이사장님이나 이사님이나 나하고 동갑인데 나이가 많아 까딱까딱하는지 몰라도 이런 수감태도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것을 귀감 삼아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한테 철저하게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질의하십시오.

○安載弘委員 安載弘委員입니다. 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료를 나눠준 것 중에서 입찰조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남궁혜경 씨의 입찰조서를 위원님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혜경 씨가 결국 팔각정 관리에 대한 재입찰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입찰금액에 입찰금액 표기를 잘못해서. 재입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남궁혜경 씨의 재입찰서에도 입찰금액란을 읽어보면 글씨가 전혀 잘못되어 있어요. 아십니까? 이것이 '일십삼억일천일백이십만원'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육십'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이사장님!

○理事長 趙學來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당초에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십'이라는 그러니까 화폐단위 앞에다가 반드시 공란을 없애고 또한 정정할 것을 위조할 것을 염려해 가지고 앞에다가 쓸 때는 붙입니다. '일십'이라고 씁니다.

○委員長 李憲九 그런데 이사장님 이것은 'ㄹ' 받침이 아니고 'ㅂ' 받침입니다.

○理事長 趙學來 맞습니다. 그것을 쓴다고 하면서 그 당시 사람도 많고 당황하고 그러니까 글자를 금액과는 관련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安載弘委員 행정을 하는 분들은 말이죠. 절대로 결과를 놓고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말하자면 그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 과정을 무시해도 안되는 것이고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행정이지 중간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져도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 행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최초에 북악팔각정에 대한 재입찰의 사유가 입찰금액에 대한 표기 잘못으로 야기된 일이라면 적어도 2차 입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점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理事長 趙學來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오를 다시 그 전철을 밟는 꼴이 되어 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경원에다가 전화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직접 금액과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처리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安載弘委員 따라서 지금 북악팔각정 전통한옥 매점 위탁과 관련하여 공무원인 녹지과의 이원형 씨에 대한 사유서 징구와 파견직원의 직위는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밑의 직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理事長 趙學來 근무는 합니다마는 신분상으로는 구청장 산하에

○安載弘委員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입찰에 참여해서 입찰업무를 보면서 작성한 책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理事長 趙學來 이사장이 책임을 져야죠.

○安載弘委員 그러면 이사장님! 사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理事長 趙學來 예.

○安載弘委員 일단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李東奎委員!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낙찰 입찰서에 보면 입찰가격 금액 적은 것이 '일십'도 아니고 '입십'입니다. '입십삼억일천' 이렇게 썼네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질문을 안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당시에 북악팔각정 건으로 해 가지고 최초의 입찰자가 글씨를 잘못 쓰고 도장을 비볐다고 해 가지고 문제시되어서 이것이 재입찰 들어간 것입니다. 그 내용 아시죠?

○理事長 趙學來 예.

○李東奎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은 이사장님의 책임이 너무 큽니다.

○理事長 趙學來 그 당시에 구청에서 입찰을 볼 때 다시 문제가 된 것은 실제 응찰금액과 직접 관계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표기를 하기 위해서 앞의 글자 쓰는 것이 잘못되었고 뒷부분의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李東奎委員 앞에 쓴 것은 상관없이 13억 했기

때문에

○理事長 趙學來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재경원에다 질의를 해 가지고 그것은 직접 금액과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李東奎委員 그러면 그 질의한 내용을 여기에다가 붙여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理事長 趙學來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게 하면 안되죠.

○理事長 趙學來 그리고 직접 금액과는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아라비아숫자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최초에 8억 9,000만원에 낙찰을 받았던 응찰자가 이것을 봤다고 그러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이것을 알았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까지 갈 겁니다. 지난번에 최초에 그 사람들이 쓴 아라비아숫자도 정확했습니다. 단 아라비아숫자 같은 데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이대로 넘어갔다는 것은 趙學來 理事長님의 대단히 큰 불찰입니다.

○理事長 趙學來 이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구청의 지도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저희들이 이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李東奎委員 최초 응찰자가요?

○理事長 趙學來 예, 그래서 이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항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계속 감사를 받으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라든지 자료를 붙여놔 가지고 법원 판결문이나 재경원에 의뢰했으면 서면으로 요청한 사항을 붙여놔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구두로 해 가지고 누가 믿겠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기각처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李東奎委員 이것이 나중에 또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사유서를 붙여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마칩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安載弘委員! 질의하십시오.

○安載弘委員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 옥매점 때문에 그런데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때 보험증권을 납부하는 경우와 일반 자기앞수표로 납부하는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입찰금액의 5%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아니, 자기가 5%라는 것은 자기 응찰예정금액의 5%를 보증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관련규정을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김경자 씨는 320만원을 입찰보증금을 자기앞수표로 냈고 신기호 씨는 320만원을 보험증권으로 냈어요. 그래서 신기호 씨한테 얼마에 낙찰이 되었느냐 하면 2,335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예.

○安載弘委員 어떻게 맞습니까?

○理事長 趙學來 높게 썼으니까 최고 높은 가격을 쓴 사람에게 낙찰을 시킨 것이죠.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높은 가격을 썼는데 보험증권은 320만원을 제출하고 김경자씨는 130만원을 제출하고 2,332만원을 쓰고 2,335만원을 쓰고 320만원을 보증금으로 냈다 그것이죠.

○理事長 趙學來 보증금을 가지고 말이죠. 법적으로 5% 미만을 썼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그 이상을 쓴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李東奎委員 議席에서 - 많이 낸 것은 상관없다?)

○安載弘委員 잘못됐어요. 내가 알기로는 관련

공무원이 개재가 되어서 지도한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사장께서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13分 會議中止)

(17時28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평가하고자 합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李憲九입니다. 토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생업도 뒤로 한 채 끝까지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趙學來 理事長 이하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은 구민 생활관 등 구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함은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 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이 이러한 설립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세밀히 점검해 보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결과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이사장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98년 손익 대비 10월말까지 67.8%의 손익 신장을 이루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소 미흡하거나 시정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팔각정 매점의 음식값이 너무 비싸고 품목도 한정되어 있어 이용자의 원성이 많으므로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고, 팔각정 시설 내 매점 공개입찰시 3개 업체만 참가한 것은 홍보 부족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므로 추후에는 구의원에게도 알려주고 홍보를 철저히 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구민 생활관의 수영 등 인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되도록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 바라며, 구민회관 등 관리로 증가된 정원 충원 시에는 구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공단 자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공단 직원의 일반직원 신규채용 시에는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50% 정도는 공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스포츠용품 판매점은 위탁 운영하던 것을 '99년부터 직영하고 있으나 위탁운영과 직영시의 수익성을 다시 면밀히 분석하여 운영방법을 재검토하기 바라며, 공단의 경영에 대하여 아직까지 자체감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는 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와 별도로 반드시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 공단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구의원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건의해주기 바라며, 이사회 운영의 서면결의는 되도록 지양하고 이사회를 소집 운영해야 할 것이며, 이사회의 구성원 4명은 가부동수일 경우 의사 결정시 문제점이 있으므로 추가 선임을 검토하고, 위탁운영 계약시에 주민등록등본도 첨부되지 않은 등 증빙서류가 부실한 바 시정조치 바라며, 북악팔각정 전통한옥매점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입찰 참가서를 동일인이 작성하고 입찰금액도 3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은 담합 의혹이 있는 바 사유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중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時34分 監査終了)

○出席委員 9人

李憲九　安載弘　鄭泰淳　千相旭
劉燦鍾　朴鍾植　洪起瑞　李東奎
金正大

○出席專門委員

姜光日

○出席關係公務員

理事長 趙學來
理事 尹熒老
管理課長 李重燮
運營課長 李木熙